



10대 청소년의 음란물 이용 행태 조사

방송통신진흥본부 방송통신기획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기 이전인 청소년들이 불법적이고 자극적으로 제작된 음란물을 접하게 될 경우 부정확한 성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러한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는 청소년 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특히 개인단말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SNS 및 클라우드 등을 통해 음란물의 시청뿐 아니라 직접 유통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청소년들의 음란물 이용행태와 중독 상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음란물에 아무런 장벽 없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조사방법론 개요〉

- 조사일시 : 2014.11.27~2014.11.30
- 조사대상자 : 10대 인터넷 이용자 200명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조사 협력 업체 : 마케팅크

1. 조사배경

2. 10대의 음란물 이용 현황

- 2.1 음란물 노출 양상
- 2.2 음란물 이용 행태 및 전파 경로
- 2.3 중독 단계 자가 진단

3. 시사점

WWw



1. 조사 배경

1. 본 조사는 전국의 10대 인터넷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흘 동안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응답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100명, 총 2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녀는 각각 100명씩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성인물, 음란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최근에 새롭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개인단말인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성인인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외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음란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아무런 장벽 없이 음란물에 접촉할 수 있고, 나아가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여 유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란물 이용 경험 유무, 최초 이용경로, 경험한 음란물 형태, 이용단말, 그리고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조사했다.¹⁾ 이를 통해 규제당국과 업체들은 물론 청소년 정책 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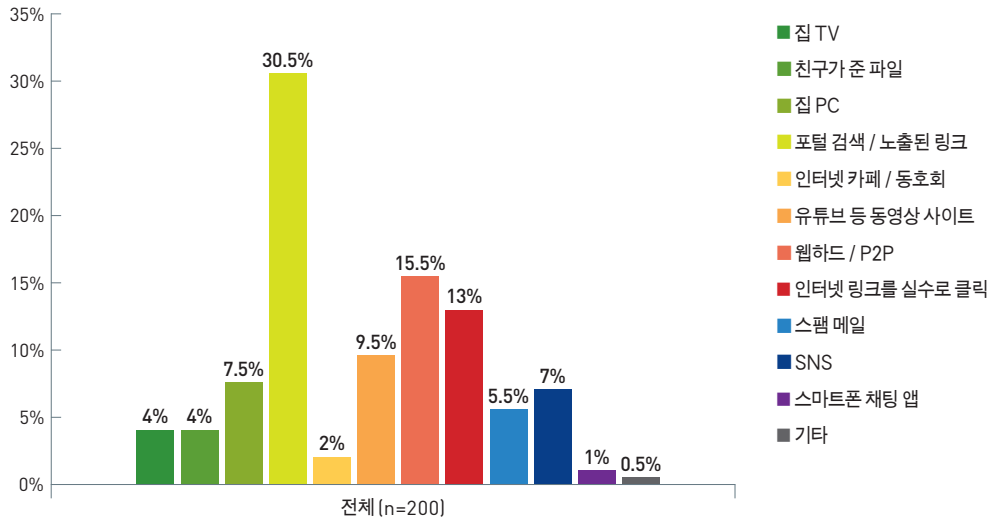
2. 10대의 음란물 이용 현황

2.1. 음란물 노출 양상

음란물을 접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전원이 어떤 형태로든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포털에서 직접 검색 또는 포털에 노출된 링크를 통해' 음란물을 처음으로 접했다는 응답으로, 전체의 30.5%에 해당되었다.

직접검색이나 웹하드/P2P 서비스 이용과 같은 능동적인 행태에 따른 음란물 이용경험 외에 '인터넷 서핑 중 링크를 실수로 클릭해서' 또는 스팸 메일을 통한 경험이 각각 13.0%와 5.5%로 나타났다. 약 20%의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란물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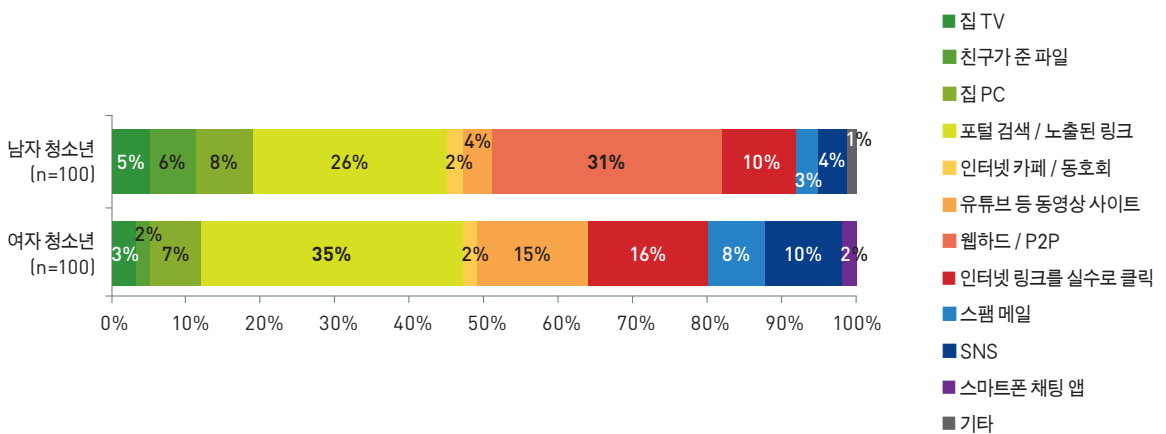
그림1 음란물 최초 노출 경로 (단위: %)



음란물의 최초 노출 경로에 있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웹하드나 P2P 서비스를 통해’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1.0%에 달해 1위를 기록한 반면, 여학생 중에서는 해당 경로를 통해 처음 접한 응답자는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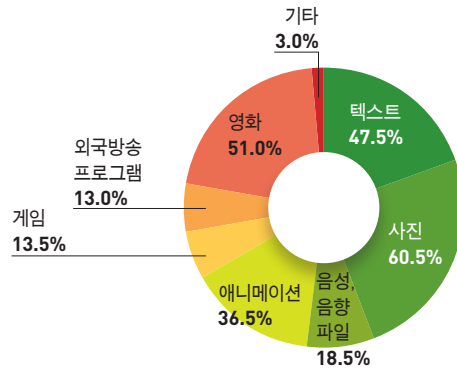
여학생의 경우 ‘포털에 직접 검색 또는 노출된 링크를 통해’ 경험한 경우가 35.0%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링크를 실수로 클릭’한 경우가 16.0%,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접한 경우가 15.0%로 뒤를 이었다.

그림2 성별 음란물 최초 노출 경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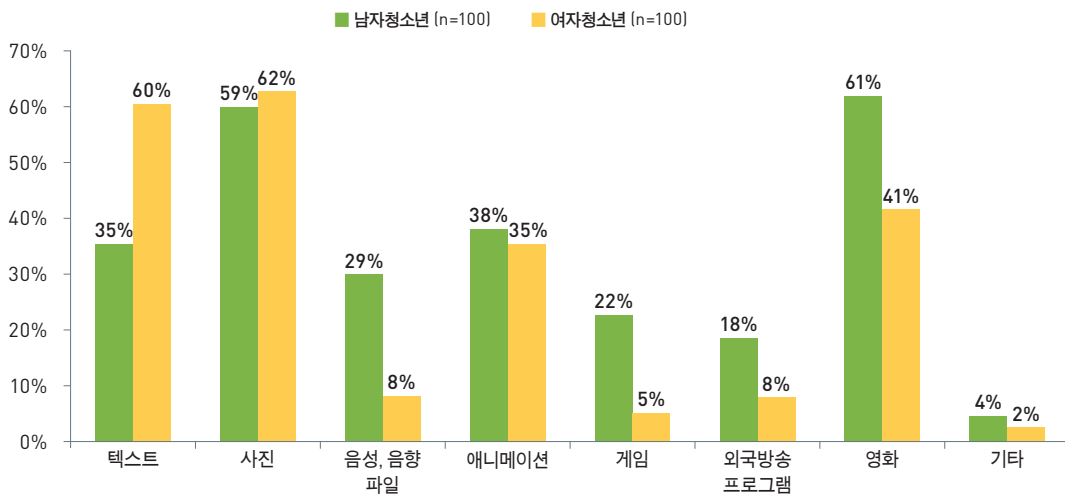
또한, 노출된 음란물의 형태에 대해(복수응답) ‘사진’ 형태의 음란물 60.5%, ‘에로 및 포르노 영화’가 51.0%, ‘소설 등 텍스트’가 47.5%, ‘성인 애니메이션’이 36.5%로 조사되었다.

그림3 노출된 음란물 형태 (복수응답)



남자 청소년의 경우 ‘영화’와 ‘사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사진’과 ‘텍스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진의 경우 남·여 청소년 모두에서 노출 경험이 많은 음란물 형태였으며, 영화와 텍스트의 경우에는 성별 차이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음성 파일이나 게임의 경우에도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의 노출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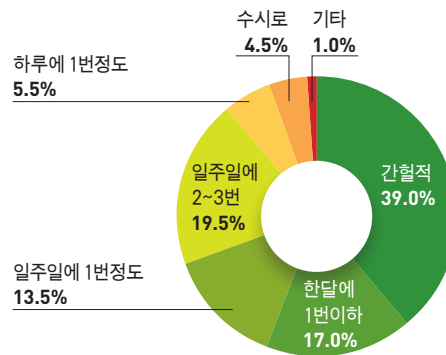
그림4 성별에 따른 경험해본 음란물 형태 비교 (복수응답)



2.2. 음란물 이용 행태 및 전파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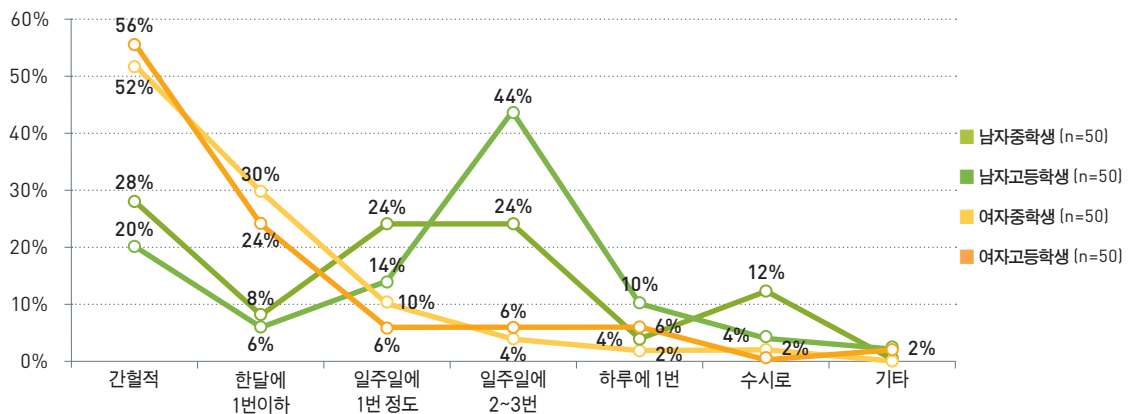
음란물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연히 한 두 번 봤을 뿐, 지속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주일에 2~3번’과 ‘한 달에 1번 정도’ 본다는 응답자가 각각 19.5%, 17.0%로 뒤를 이었다.

그림5 음란물 이용 빈도 (n=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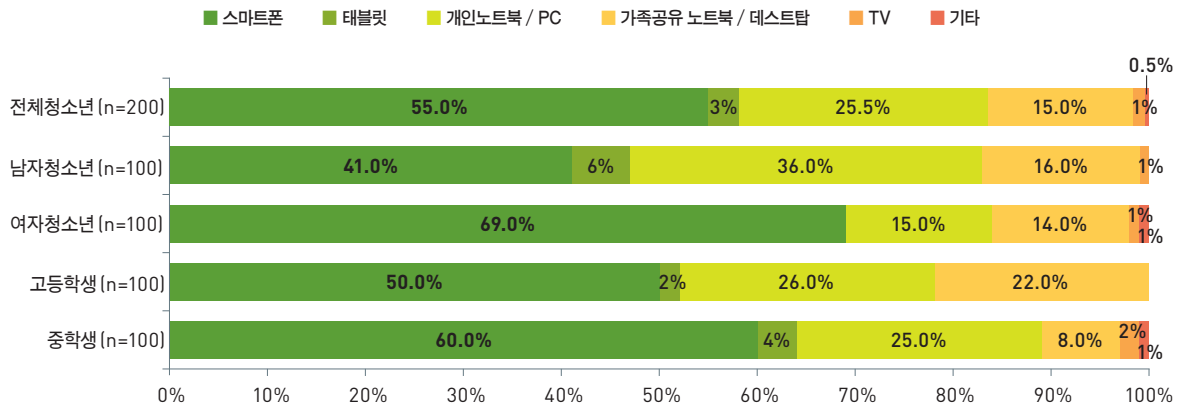
이용 빈도 측면에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비해, 남학생들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시청 빈도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시로’ 시청하는 비율은 남자 중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6 음란물 시청 빈도 비교



응답자들은 음란물을 이용하는 주된 단말로 개인이 소유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대부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이용 단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0%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5.5%가 ‘개인 노트북 또는 PC’를 통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공용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역시 15.0%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의 비중이 다른 단말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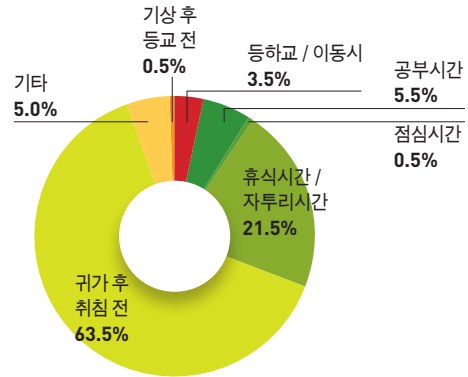
그림7 음란물 주 이용 단말



또한 청소년들은 주로 ‘귀가 후 취침 전’에 음란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3.5%가 이 시간대에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휴식시간 및 약속장소에서의 자투리 시간 등’에 이용한다는 비율도 21.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부시간’에 음란물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5.5%를 차지했다.

2. 남자 중학생 50명 중 9명, 남자 고등학생 50명 중 10명, 여자 중학생 50명 중 10명, 여자 고등학생 50명 중 5명이 전파 경험이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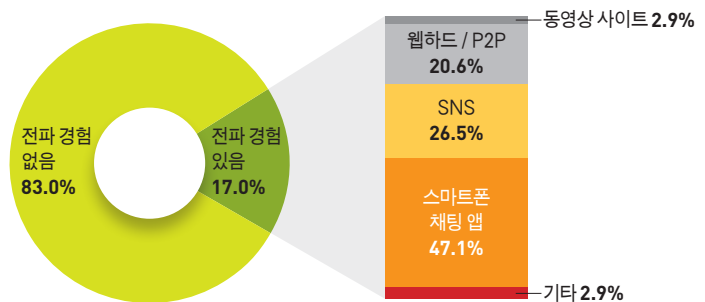
그림8 음란물 이용 빈도 (n=200)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들의 음란물 유포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접한 음란물을 친구 등 지인에게 전달해준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17%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 성별 구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²⁾

음란물을 다른 이에게 전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4명 중 47.1%는 ‘카카오톡이나 틱톡 등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메신저는 개인간 1:1 대화채널이라는 점에서 쉽게 음란물을 전달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또한 26.5%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20.6%는 ‘웹하드나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했다고 응답했다.

그림9 음란물 전파 경험 및 경로



한편,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200명 중 남자 중학생 2명, 여자 중학생 및 고등학생 각 1명이 제작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중독 단계 자가 진단

미국의 심리학자인 빅터 클라인은 음란물에 대한 반응을 4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한 바 있다.

- 1단계: 음란물을 접하는 청소년은 더욱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또 보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 2단계: 음란물을 자주 볼수록 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게 된다.
- 3단계: 음란물을 많이 접하다 보면 청소년들은 음란물의 내용이 정상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
- 4단계: 음란물에서 알게 된 장면들을 모방해서 실제로 성행위를 경험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본 조사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조사에 응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중독 단계를 6단계로 세분화하여 자기 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스스로의 평가에서 중독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선택지에 대해 1점에서 6점으로 구분하여 진단한 결과 전체 평균 중독도는 1.83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이 각각 1.48점, 1.56점으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이 2.08점인데 비해, 중학생이 2.18점으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10 음란물 중독 단계 자가 진단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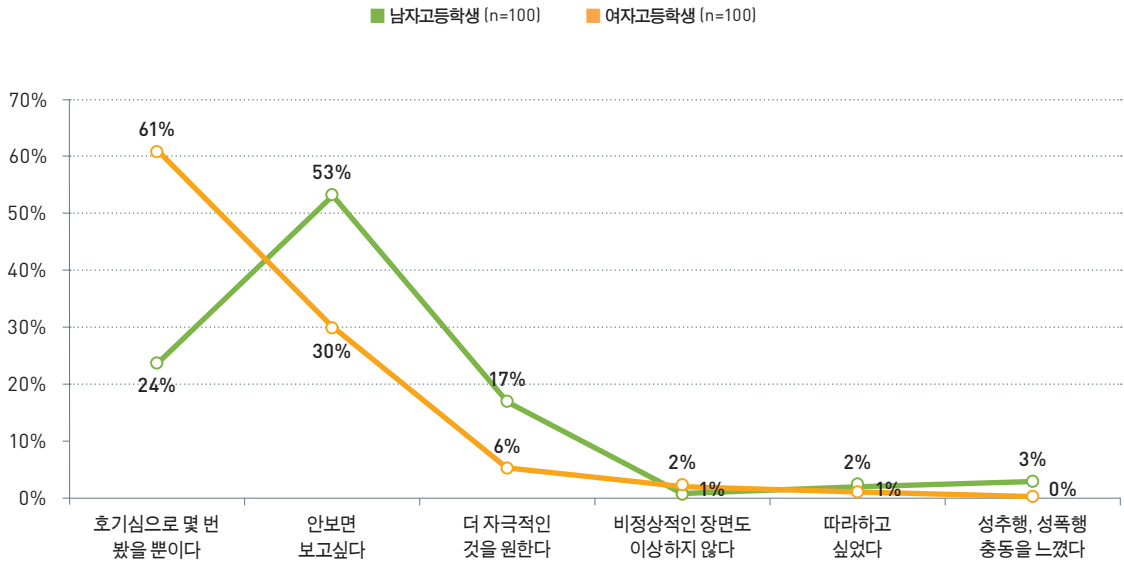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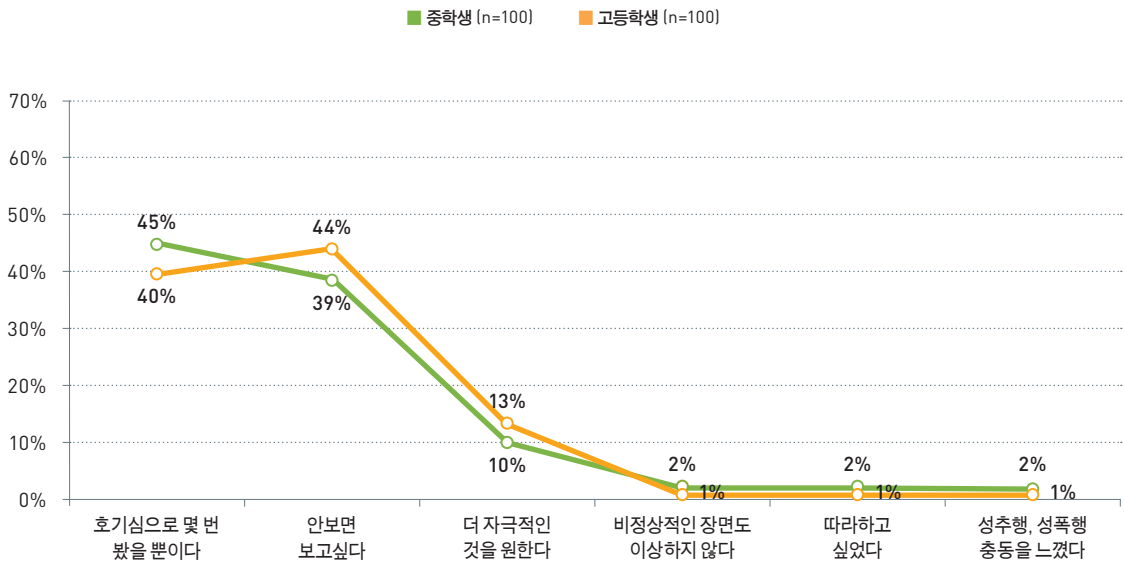


그림11 음란물 중독 단계 자가 진단 연령별 비교



3. 시사점

청소년기에 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성의식을 위해서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불법적인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규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성적인 음란물 노출은 폭력과 연관되어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포털을 통해 음란물을 직접 검색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나 인터넷 이용 중 노출되는 음란물이나 스팸메일 등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설문 응답자의 규모가 적고, 조사기간도 짧으며, 설문문항의 단편화로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본 조사의 목적은 성인 콘텐츠 시장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 행태를 단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향후 보다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아울러 시대적 변화에 맞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하였다.